

## 이기풍(李基豊) 목사의 성화담론 분석 - 그의 “新造의 人”(1922)을 중심으로

안수강 (백석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기승전결(起承轉結) 구도로서의 ‘성화의 서정(序程)’ 분석: 〈법정적 심판-인간의 타락상-예수 그리스도의 대선지자직-신조의 사람〉

### III. ‘신조의 사람’과 관련된 ‘내연(內燃)’ 및 ‘외연(外延)’의 관점

1. ‘신조의 사람’, 그 내연의 관점 분석
2. ‘신조의 사람’, 그 외연의 관점 분석: 기독교윤리 실천

###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6.05>

---

• ABSTRACT •

---

An Analysis of Rev. Gi-Pung Lee's Discourses on Sanctification:  
Focusing on His "New Man"(1922)

Adjunct Prof. Ahn, Su-Kang (Baekseok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zes Rev. Gi-Pung Lee's discourses on sanctification in his "New Man". This text is based on Ephesians 4:22-24. Lee's view of sanctification is based solely on his work "New Man" published in *Jonggyogyeyoi Jemyeongsa Gangyeonjip*(1922)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key concepts of Gi-Pung Lee's 'Discourses on Sanctification'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 attempted to study the order of sanctification based on his diagrammatic argument, focusing on the systematic structure of <① forensic judgment→② human's fall and corruption→③ the high-prophetic office of Jesus Christ→④ new man>. Second, I treated with Lee's view of the new(καινός) man based on Ephesians 4:22-24. I concentrated on practical paradigms for five elements as 'internal combustion' and five fruits as 'external extension'. Lee laid great emphasis on the mutual consistency of five elements and five fruits. In addition, I suggest future extensions of this research into Rev. Gi-Pung Lee's other discourses on sanctification such as 'his faith and sanctification', 'his teaching and sanctification', and 'his devotional life and sanctification.'

**Key words:** Gi-Pung Lee, "New Man", Sanctification, Christian Ethics, Repentance, 'Internal Combustion' & 'External Extension'

---

##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1907년 한국장로교 최초로 장립을 받은 7인 목사들 중의 한 분이자 제10대 총회장을 역임한 이기풍(李基豊, 1865-1942) 목사가 1922년도에 『宗教界諸名士講演集』<sup>1)</sup>에 게재한 회귀본 “新造의 人”<sup>2)</sup>을 고찰함으로써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호소한 성화담론을 분석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이기풍과 관련하여 그의 제주 선교사역, 목회활동, 신사참배 저항운동 등에 관해서는 당대의 총회록과 노회록을 비롯하여 주변자료들을 통해 여러모로 사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신앙 혹은 신학사상을 접할 수 있는 유작은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만큼 “新造의 人”은 초기 교회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1919년 기미년 삼일독립운동 이후 일제는 종래의 무단 식민통치 체제를 개정하여 문화정치로 정책을 선회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인들을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적 시스템에 순화시키기 위해 획책한 교묘한 전략이었다. 한국기독교 역시 자칫 본연의 정체성을 잃고 일제의 조합교회(組合敎會)에 동조하여 식민정략에 포섭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있었다. 당시 조합교회는 일제가 한국에 잠입시킨 어용교회였다. 조합교회 측은 삼일독립운동 발발 한 달여 후 4월 14일 경 “時局運動宣言”을 통해 일제의 침략행위를 호도하여 인도주의 실천에 공헌을 남겼다고 칭송하고, 노골적으로 삼일독립운동을 와해시키기 위한 의도로 민심을 선동했다.<sup>3)</sup> 특별히 『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는 글을 기고한 20인의 기독교 인사들 중 길선주,

1)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京城: 活文社書店, 1922), 1-242(본문).

2) 이기풍, “新造의 人,”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123-134.

3) cf.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382-384; 안수강, “김필수(金弼秀) 목사의 성찬관 분석: 그의 ‘球上無比의 記念’(1922)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제24호(2019), 253.

박희도, 정춘수, 박동완, 신석구, 이필주, 김창준 등 삼일독립운동 민족대표들의 설교문이 대거 7편이나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발행동기의 시급성이 어떠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국가와 기독교가 이념적으로 대립하여 서로 충돌할 때 기독교는 ‘국가저항’이라는 신앙고백적 노선에서 이 난제를 극복하여 기독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 저항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정립하는 일에 직결된다.<sup>4)</sup> 특별히 이기풍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의 식민 이데올로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독교윤리를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고취하기 위해 “新造의 人”을 발표했다.

이기풍은 1865년 평양 출신으로 본래 기독교를 모질게 핍박한 인물이었으며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 모펫(Samuel A. Moffett)에게 돌을 던져 턱에 중상을 입혔던 일화가 전해온다. 청일전쟁(1894-1895)이 발발하자 원산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도 신자들을 핍박하던 중 선교사 스왈런(William L. Swallen)의 전도로 회심하여 기독교에 입교했다. 처음에는 권서인(勸書人)으로 활동했고 안악, 문화, 신천, 장연, 해주 등지에서 조사(助事)로 사역했으며 1907년 제1회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여 동년 9월에 독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는 전도위원회 위원장 길선주 목사가 노회에 제주도 선교사 파송안건을 상정하자 즉시 제주선교를 자청했고 “제주 선교사는 리기풍 씨로 전도인 혼두 사름과 동반하야 파송할 일”<sup>5)</sup>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독노회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1908년 제주도에 상륙한 이래 모진 핍박을 무릅쓰고 전도사역에 진력하여 마침내 성내교회를 설립했으며 삼양, 내도, 금성, 한림, 협재, 두모, 용수, 고산, 모슬포, 중문, 법환, 성읍, 세화, 조천 등지에 복음을 전했다. 1918년

4) 이 논지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양신혜, “배자의 국가 저항권에 대한 이해,” 『갱신과 부흥』 제24호(2019), 87, 111.

5) 『대한예수교장로회회록(데일회)』(1908年 10月), 17.

광주 북문안교회에 부임하여 사역했고 1921년에는 장로교 제10대 총회장으로 봉직했다. 1922년 순천교회, 1924년 고흥교회, 1931년 벌교교회 목사로 시무했고, 1934년에는 여수 금오도 우학리에서 복음을 전했다. 1936년에 부임한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의 동화정책을 추진하여 신사에 참배할 것을 강요하자 이를 우상숭배로 단정하여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1938년 순천노회 소속 오석주, 나덕환, 김상두, 김순배 목사 등과 더불어 검속 당했으며 칠순을 넘긴 고령으로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생사의 기로에서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과로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해방을 3년 앞둔 1942년 6월 여수 우학리 사택에서 소천했다.<sup>6)</sup>

“新造의 人”이 발표된 『宗教界諸名士講演集』은 1922년 경성부(한양) 수송동(壽松洞)에 소재한 활문사서점(活文社書店)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정성구는 발행연도가 1921년인 것으로 보았지만<sup>7)</sup> 이는 김필수 목사(제4대 총회장)와 편집자 한석원 목사가 작성한 “序”(1921년 7월 13일자)와 “自序”(壬戌之春三月)에 기록된 연도이다. 책 뒷부분에 첨부된 서지정보에는 ‘大正 十一年’(주후 1922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기풍이 “新造의 人”의 문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점을 “只今부터 一千九百二十二年 前”<sup>8)</sup>이라고 명기한 점으로 미루어 이 글이 작성된 연대는 삼일독립운동 발발 3년이 지난 1922년도인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에 한국기독교청년회(YMCA)의 월간 기관지 『青年』의 편집인 직무를 맡았던 한석원 목사가 이 강연집 발행을 위해 장로교와 감리교 등 개신교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한 저자 당 한 편씩 총 20편의 글을 취합했다.<sup>9)</sup>

6)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12권)』(서울: 기독교문사, 1993), 1093. ‘이기풍’ 항목; 심근식,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생애』(서울: 영문, 1994), 45-77;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1999), 46-53.

7) 정성구, 『한국교회설교사』(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6), 69.

8) 이기풍, “新造의 人,” 124.

설교분량 지면은 총 242면으로 한 단 내려쓰기 방식으로 활자 조판되었으며, 경성부 공평동(公平洞)에 소재한 대동인쇄주식회사(大東印刷株式會社)에서 인쇄했고, 가격은 80전(錢)으로 책정되었다. 이기풍의 글 제목 “新造의 人” 상부에는 정숙한 두루마기 차림새의 상반신 사각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하단의 소속 및 직책 소개란에는 ‘順天郡長老教會牧師’로 기록되었다. 그는 성경본문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sup>10)</sup>로 정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촉구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되새겼다.

지금까지 이기풍 목사와 관련하여 저술된 저서와 논문들을 분석해보면 거의 일률적이라 할 정도로 제주도 선교활동에 편중되어 있고 선교사역을 핵심 주제로 설정하여 다루었다. 김형석은 “제주교회사의 유적을 찾아”(1994)에서 부분적으로 이기풍의 제주도 입도(入島)와 제주교회, 금성리교회의 자생적 교인 등을 다루었다.<sup>11)</sup> 심군식은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생애』(1994)에서 이기풍의 청소년 시절, 선교사 모팻과의 인연, 기독교 입신, 전도자의 삶, 제주도 선교, 질병, 신사참배 항거, 순교의 삶 등을 정리했다.<sup>12)</sup> 서정민은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2000)에서 일부 내용으로 편성하여 제주도와 이기풍의 선교를 살폈다.<sup>13)</sup> 변창욱은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2007)에서 1907년부터 1956년까지 통시적 관점에서 이기풍, 김영훈, 방효원, 김

9) 당시 한석원은 YMCA 기관지 「靑年」의 편집인으로 일했고, 『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 “責任의 自覺”을 발표했다. 한석원, “責任의 自覺,”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1-14. 그는 명사들의 연설 현장에 직접 임석(臨席)하여 강연내용을 직접 녹취했다.

10)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에베소서 4:22-24, 개역개정)

11) 김형석, “제주교회사의 유적을 찾아,”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집(1994), 241-258.

12) 심군식,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생애』, 45-77.

13)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제28집(2000), 173-191.

순호, 최관홀 등의 사역을 소개했다.<sup>14)</sup> 박정환은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이기풍 선교사 이전 현지인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2013)에서 이기풍이 입도(入島)하여 선교하기 이전의 개신교 ‘이호리 신앙공동체’와 ‘금성리 신앙공동체’에 대해 연구했다.<sup>15)</sup>

본 논문에서는 이기풍의 유작 “新造의 人”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제로서 그의 성화담론에 대해 고찰할 것이며 이 글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기승 전결(起承轉結) 구도로서의 ‘성화의 서정’ 분석>, 성화 논증과 직결된 <신조의 사람과 관련된 ‘내연’(內燃) 및 ‘외연’(外延)의 관점> 등을 중심 논지로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기풍이 남긴 단편 자료에 의존하여 성화담론을 논한다는 점에서 통일성 있게 그의 사상을 분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지만 다음 몇 가지로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이기풍에 관한 글은 거의 대부분 제주선교사역이 핵심적인 주제로 부각된다. 이 논문에서 다룬 이기풍의 성화담론은 종래 획일적으로 채택된 그의 제주선교 사역을 넘어서서 기독교윤리 관점에서 조명한 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이기풍에 대한 연구는 한국 장로교 초기에 그가 남긴 업적이나 위상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편이다. 이 논문은 추후 그와 관련된 자료 발굴과 담론을 촉진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셋째, 그의 “新造의 人”은 거의 한 세기 전인 1922년에 발표된 고전적인 글이지만 현하 기독교윤리가 퇴조되어가는 한국기독교에 성화의 과업을 일깨워주는 현실성 있는 교훈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14) 변창욱,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선교와 신학』 제19집(2007), 13-65.

15)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이기풍 선교사 이전 현지인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9집(2013), 181-208.

## II. 기승전결(起承轉結) 구도로서의 ‘성화의 서정(序程)’ 분 석: <법정적 심판-인간의 타락상-예수 그리스도의 대선지자 직-신조의 사람>

본 연구자가 분석한 바로는, 이기풍의 “新造의 人”에 나타난 성화의 논지는 정형화된 기승전결 네 단계의 구도로 전개되어 있다. 그는 1907년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서 당시 초기 신학수준이나 경륜으로 미루어 볼 때 신학사상을 체계성 있게 논증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었던 시기였다. 그의 “新造의 人”은 ‘성화의 서정’(order of sanctification)을 논함에 있어 기승전결의 서정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가 이 글에서 보여주는 성화담론은 <법정적 심판(forensic judgment)→인간의 타락상→예수 그리스도의 대선지자직→신조의 사람>이라는 네 단계의 순차적인 맥락으로 전개되어 있다. 즉 타락한 한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추게 되고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통전적으로 ‘성화의 서정’을 구상하여 줄곧 기승전결의 구도를 유지했다.

첫째, ‘기(起)’의 단계에서는 불의를 철저히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적 차원에서 부각시켰다. 이 단계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공의로운 속성이 엄정하게 작용하는 법정적 심판의 취지를 담는다. 그의 논지는 종교개혁자 루터(Martin Luther)와 그의 동역자 멜랑히톤(Philip Melancthon)이 체계화한 법정적 칭의(forensic justification)<sup>16)</sup>의 일부

16) 어거스틴(Augustine)은 칭의에 있어 ‘imparted righteousness’ 차원에서 ‘의롭게 여겨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루터의 법정적 칭의 관점에서는 ‘imputed righteousness’ 차원에서 의의 전가(imputation) 혹은 수동적 의(passive righteousness)가 ‘선언(선포)된다’는 차원을 강조한다. Alister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Oxford: Basil Blackwell Inc., 1989), 84. cf. Philip Melancthon, *Commentary on Romans*, trans.

논증과 궤적을 공유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집행하시는 심판과 사람이 자발적으로 범하는 죄를 유기적 인과관계로 엮어 인과율의 도식을 이끌어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측이 아니라 인간 측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사유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범한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創世記 六章을 보면 十一節도 十三節까지 하나님께서 이 世上에 만드러하신 사람이 漸漸 惡하게 되야 다. 道를 거역하고 暴行함이 極度에 나른故로(이르렀기에-연구자 주) 하나님은 큰 洪水로써 「노아」의 여들 食口 外에는 世界의 表面에서 모든 사람을 다 滅亡시켰다는 것을 記錄하였습시다. 이 洪水가 잇슨 것은 모든 學者 歷史家도 疑心하지 안는 바입니다.<sup>17)</sup>

이기풍이 논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그의 선민(選民)에 대한 징계만을 고려한다든지, 또 이들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되며, 따라서 일반은총 영역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특별히 노아의 홍수를 소개할 때 “세계의 表面에서 모든 사람을 다 滅亡시켰다”<sup>18)</sup>라고 하여 지상의 전 인류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별개의 사례까지 들어 중국 하(夏)나라의 선군(善君) ‘禹님君’(夏禹 禹王) 치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sup>19)</sup> 결국 그의 논지에 따르면 불의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갖는다.

둘째, 기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 ‘승’(承)의

Fred Kramer(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92), 71-73.

17) 이기풍, “新造의 人,” 123.

18) 위의 글.

19) 위의 글.

단계에서는 죄로 오염된 인간의 심각한 타락상을 거론했다. 이기풍은 모든 인간이 천성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지녔다고 진단했으며 죄에는 “庭園의 雜草를 뽑을지라도 그 뿌리에서 풀이 다시 나는 것”<sup>20)</sup>처럼 결코 근절되지 않는 지독한 속성이 내재해있다고 했다. 그는 인간의 타락을 논할 때 인류시조인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 당대의 타락상에 비중을 두었다. 이는 홍수를 통해 지상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체결한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인류 역사를 새롭게 개개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체결하신 언약은 선민을 보존하시는 ‘보존의 언약(the covenant of preservation)’이라는 관점에서 언약신학의 굵직한 맥락을 형성한다.<sup>21)</sup> 이기풍은 홍수 당시 방주 안에 도피하여 생명을 부지했던 여덟 식구들이 모두 다 섰던 것은 아니며, 노아 역시 후일 포도주에 만취하여 자식들에게 추한 모습을 드러냈듯이 그에게도 흠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후 노아의 후손들도 예외 없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고스란히 최악의 전처를 답습했을 정도로 부패한 자들로 전락한 사실을 고발했다. 그렇다면 이기풍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조명할 때 왜 이처럼 굳이 타락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는가? 그는 이 논증을 통해 노아 이전 시대이건 그 이후의 시대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을 변증하기 위해서였다.

하느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自己의 目的에 背反하여 風俗은 어즈러워지며  
亂暴은 行動만 하는 故로 忿怒하시 滅亡식히기로 生覺을 하셨습니다. 그러하

20) 위의 글, 129.

21)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2), 109-125.

지마는 여들 사름은 救援을 었어습니다. 그 여들 사름이 다 착흔 사름은 아니 었습니다. 創世記 九章 二十一節에 「노아가 葡萄酒를 마시고 醉亨야 발가벗고 帳幕 안에 누엇더니」란 말이 잇습니다. 그 후 「노아」의 여들 사름으로부터 사름이 繁殖함을 썩라서 그 사름들이 썩 惡亨게 되었습니다.<sup>22)</sup>

그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한결 같이 타락했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오랜 세월 에 걸쳐 엄하게 경고하시고 타이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방관하여 멸시했을 정도로 부패상이 고질화되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처럼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의 불경스런 행태와 완고한 태도를 반 추하여 우이독경(牛耳讀經-“소 디가리에 경이라”)<sup>23)</sup>이라는 경구로 묘사했 다. 그는 타락한 인간상을 가리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라, 풍속을 어지럽힌 자이며, 난폭한 행동을 취한 폭행자라고 단정했다.<sup>24)</sup>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단초를 조물주와 피조물 구도의 상관 관계에서 탐색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거역했다 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배반’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내었다.<sup>25)</sup>

셋째, ‘기’와 ‘승’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간의 타락상과 연계하여 엮어낸 후에 ‘전’(轉)의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선지자직 (great prophetic office)을 개입시켜 반전을 꾀했다. 주목해야 할 점으로

22) 위의 글, 123-124. 칼빈은 인간의 부패란 어느 한 시대의 타락상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항구적 부패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trans. Ford L. Battl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I. 3:2(291면).

23) 이기풍, “新造의 人,” 124.

24) 위의 글, 123.

25) 위의 글. 이기풍은 “하느님피서 지으신 사름이 自己의 目的(하나님의 창조목적-연구자 주)에 배반亨야”라는 문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목적과 인간 측의 배반을 대치시켜 이해했다.

서, 그는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서도 특히 예언과 경계의 메시지를 위탁 받은 선지자 직무에 초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리신 신탁(神託)의 말씀을 선한 의지로 순종하고 준수함으로써 죄악을 벗어나 진정한 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관점을 논증하기 위해서였다. 조직 신학자 벌코프(Louis Berkhof)가 말한 것처럼 본래 선지자의 고유한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가르침과 권면, 영광스런 약속들, 엄중한 책망 등의 방식을 통해 수행된다.<sup>26)</sup> 바로 이 점에서 선지자의 사역은 성화를 위한 과업에 직결된다. 그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아모리 先知者가 盡力 糶지라도 生命까지 內어놋코(내어놓고-연구자 주) 힘쓸지라도 그 業해서 內어(옆에서 이어-연구자 주) 더럽게 되엿습니다”<sup>27)</sup>라고 하여 사람들이 참다운 성화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마침내 신약에 이르러서는 구약 선지자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심으로써 이들이 성취하지 못했던 큰 과업을 이루실 수 있었다고 했다.<sup>28)</sup> 그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활동한 일반적인 선지자들과는 달리 대 선지자이셨기에 공생애 기간 동안 단지 열두 제자들만을 선택하여 훈련시키셨고, 이 기간에 향후 복음전파의 보편화를 추진하기 위한 위대한 일을 준비하셨다고 했다.

孔子에게는 三千 弟子가 잇섯다 하며 釋迦에게는 五百 羅漢이 잇섯습니다.

26)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358.

27) 이기풍, “新造의 人,” 124.

28) 위의 글, 123. 벌코프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 선지자직 수행과 관련하여 이때부터는 언어적 소통으로서만 교육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의 사실들로서 성육신, 대속사, 부활, 승천 등을 가르치셨다는 점에서 더욱 심오한 의미가 내재되었다고 보았다.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359.

「소크라테스」에게도 弟子가 만히 잇섯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만 열둘뿐이 엿습니다. (중략) 三年 동안에 다만 열흔 사람(가롯 유다 제외-본 연주자 주) 뿐이올시다. 엿지호야 예수는 그러흔 일을 호섯습닛가? 그곳이 大先知者가 되시는 理由인故로 잘 生覺호야 홀 것입니다.<sup>29)</sup>

예수 그리스도는 열두 사람을 后年 大事(복음의 보편화-연구자 주)에 教養을 호신 것입니다. 이 外에 女 弟子와 또 門徒들이 잇서서 漸漸 예수가 이 世上을 써나시라 홀 썩에는 百二十人의 弟子가 잇섯습니다.<sup>30)</sup>

넷째, ‘결’(結)의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들이 점진적으로 ‘신조의 사람’으로 승화되고 고양되어가는 과정을 논했다. 이 기승전결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역사의 타락한 연대성을 드러내심으로써 심판의 기능만을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은혜를 향한 길을 준비하시고 부지런히 수행하시는 분이시다.<sup>31)</sup> 신조의 사람이란 이기풍이 본문으로 채택한 에베소서 4장 24절에 기록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가리키며 입신(入信)한 후 성화의 과정에 놓여 있는 신자를 의미한다. 변증신학자 반틸(Cornelius Van Til)은 의, 진리, 거룩을 이마고테이(imago Dei)로 보았으며,<sup>32)</sup> 벌코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참 지식, 의, 거룩성을

29) 이기풍, “新造의 人,” 126.

30) 위의 글, 126-127.

31) 홍순원, “인격과 사회구조에 나타나는 악의 구조성,” 「기독교사회윤리」 제33집(2015), 397.

32) Cornelius Van Til, *The Defence of the Faith*(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13. 칼빈은 이 구절 주석에서 ‘거룩은 율법의 첫 부분에, ‘의’는 둘째 부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거룩과 의를 율법의 강령차원에서 조명했다.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 T. H. L. Parker(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190-191.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했다.<sup>33)</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제4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와 거룩성을 갖추게 하셨다는 고백을 담았다.<sup>34)</sup> 화란 개혁신학자 바빙크(Herman Bavinck)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질이 고귀한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sup>35)</sup> 종교개혁자 칼빈(John Calvin)은 이런 저런 기능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으로 잔존하며 이 점이 전 인류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해준다고 했다.<sup>36)</sup>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곧 신자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공유적 속성을 다시 회복해가는 인격체로서의 거룩성, 즉 성화의 차원을 지향한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본래 ‘새 사람(new man)’이란 본성이 질적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키텔(Gerhard Kittel)의 『신약신학사전』(*T. D. N. T.*)의 정의에 의하면 이 새로움을 뜻하는 헬리어 형용사 카이노스(*καινός*)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을 갖는 네오스(*νέος*)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 용어이다. 물론 두 단어 모두 ‘새로운(new)’이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카이노스는 네오스와는 달리 본성의 순수한 질적인 변화(new in nature)를 담은 수식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37)</sup> 이기풍이 언급한 신조의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위치적 혹은 신분적 칭의(positional righteousness)가 주어진 신자들이며,

33) Louis Berkhof,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박수준 역, 『기독교교리요약』(서울: 도서출판 소망사, 1991), 87.

34) Westminster Assembly,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Loki's Publishing(April 16, 2013), 4:2.

35) Herman Bavinck, *Magnalia Dei*,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204.

3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II, 2:12(270-271면).

37) Gerhard Kittel, *T. D. N. T.(III)*, trans. Geoffrey W. Bromiley(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447.

칭의 단계 이후에 꾸준히 카이노스의 지평에서 마땅히 실천적 의 (practical righteousness)로서의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는 신조의 사람을 정의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잣대 (criterion)로 삼아 네 가지의 변화된 인간상을 도입했다. 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사람, ② 그를 닮아 변화한 사람, ③ 진리를 듣는 사람, ④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다. 물론 이 새로운 변화는 마치 사닥다리를 타고 위를 향해 올라가듯이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리하여 카이노스의 경지에 승화된 거룩한 신자상으로 귀결된다.

예수는 마태福音 十一章 二十八節에 「受苦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便히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나를 뵈호라(배우라-연구자 주)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밟을 것입니다.<sup>38)</sup>

오늘 問題인 「새로 된 사람」 었든 사람을 「新人」이라 하겠습닛가? 하느님의 眞理를 듯고 悔改 하는 사람입니다. 只수까지는 하느님이 계시냐? 업는가? 계시다 홀지라도 別노히(별로-연구자 주) 그 하느님의 依賴 하지 안어도 도타(좋다-연구자 주) 하는 사람이 하느님을 아버지로써 依賴 한다는 態度로 變하엿습니다.<sup>39)</sup>

이 聖潔이란 것은 悔改 하고서 식로히(새롭게-연구자 주) 된다는 뜻인데 마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것 갓치 眞 層을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聖潔이란 뜻은 漸漸 예수 그리스도와 갓치 된다는 것(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연구자 주)입니다.<sup>40)</sup>

38) 이기풍, “新造의 人,” 130.

39) 위의 글, 128.

40) 위의 글, 131.

이처럼 이기풍이 논한 성화의 서정은 큰 틀에서 한 지평 위에 ‘기’의 단계로서의 법정적 심판, ‘승’의 단계로서의 인간의 타락상, ‘전’의 단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선지자직 수행, 그리고 ‘결’의 단계로서의 새롭게 지음을 받는 신조의 사람으로 도식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그가 논한 성화의 서정은 하나님의 엄격한 법정적 심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조의 단계에서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기까지 순차적으로 종말론(심판: ‘기’), 인간론(타락: ‘승’), 기독교론(선지자직: ‘전’), 구원론(성화: ‘결’)을 통일성 있게 아우르는 폭넓은 입체적 구도를 보여준다. 그는 이처럼 성화의 서정을 논하는 논증과정에서 종말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을 두루 섭렵하여 그 유기적 상관성을 통찰했다. 그는 거시적인 틀에서 기승전결의 흐름을 펼치면서 미시적 차원에서는 성화 서정의 마지막 단계인 신조의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 글을 작성한 본래적 의도가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상을 지향하는 성화담론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 III. ‘신조의 사람’과 관련된 ‘내연’(內燃) 및 ‘외연’(外延)의 관점

이기풍이 논하는 신조의 사람은 ‘내연’과 ‘외연’의 관점을 상호 유기적 인과관계로 관철한 데서 고도의 혜안(慧眼)을 보여준다. 본래 ‘내연-외연’의 원리는,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는 신앙은 마음 내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동력을 갖추었기에 그 결과 자연스럽게 외부로 향하여 원심력의 방사가 촉발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sup>41)</sup> 즉 내면적 신앙이 만개(滿開)하면 그 신앙이 마음의 범주를 초월하여 외적으로 거룩한 행동과

41) 민경배, 『教會와 民族』(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117; 민경배, 『歷史와 信仰』(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82, 140.

삶을 창출해낸다는 논리이다.<sup>42)</sup> 가령, 박정신은 1919년에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삼일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례를 들어 이는 응집력 있는 신앙심이 애국과 독립운동이라는 외연으로 확장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논증했다.<sup>43)</sup>

이기풍은 진정한 ‘신조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연의 차원에서 ‘마음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심중에 깊이 회개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의 산물로서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갖출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일단 여기까지는 내연의 차원이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연이 충족되면 반드시 외연 상에서 다섯 가지의 실천적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설교했다. 이제 이 신조의 사람에 대한 역학적 논증을 내연의 관점과 외연의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해보자.

## 1. ‘신조의 사람’, 그 내연의 관점 분석

### 1) 심정설(心情說)로서의 회개

전술했듯이 이기풍이 말하는 신조의 사람이란 예수님에게서 배우며, 그를 닮아 인격이 변화되며, 진리를 들으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인간상을 정립한 신자이다. 이 고상한 인품 중에서도 그가 가장 뚜렷하게 역점을 두어 강조한 것은 ‘회개’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이 성화의 서정을 논할 때 두 번째 단계인 ‘승’(承)의 서정에서 피력했던 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심각한 타락과 부패상이었다.<sup>44)</sup> 교만과 마음의 죄악, 신앙의 부족

42) 칼빈의 성화론은 신자의 성화가 내적인 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외적인 것을 포함하는 구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내연과 외연의 원리에 연계해볼 수 있다. cf. 유태주, “칼빈의 성화론에 있어서 성화의 완전성 이해,” 『신학과 사회』 제18집(2004), 183.

43) 박정신, 『근대한국과 기독교』(서울: 민영사, 1997), 56, 59.

은 기독교 본래의 죄의식인 것으로 지적받는다.<sup>45)</sup> 이기풍은 이점을 깊이 염두에 두어 신조의 사람을 논할 때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신자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칼빈은 주님을 영접한 신자들을 가리켜 칭의 상으로는 이미 의인으로 선포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이라고 했다. 비록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죄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재해 있으며 그러므로 죄에 대항하여 계속해서 전투를 치러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했다.<sup>46)</sup> 이 개념은 루터가 신자들을 가리켜 “본래적으로 항상 죄인이며 그래서 본래적으로 항상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sup>47)</sup>라고 진술한, ‘의인이자 또한 죄인’(simul justus et peccator)이라는 명제적 확정과 맥락이 상통한다.

이기풍은 “新造의 人” 전반에 걸쳐 의도적으로 상당분량의 지면을 할애하여 신자들이 겸손하게 신전의식(神前意識)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이 회개와 관련하여 눈여겨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그가 요구한 회개는 결코 거창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삶의 상황에서 누구든지 쉽게 근접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하고도 소소한 차원의 부패와 타락상에 주목했다. 이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평이하게 경험할 수 있는 탈선한 삶의 실상을 명쾌하게 짚어줌으로써 회개 자체를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체득할 것을 교훈하려

44) 본 논문 제2장 “성화의 서정 분석”의 둘째 항 ‘승(承)의 단계를 볼 것. 이기풍은 성화의 서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의 타락과 부패상에 주목했다.

45) 서정민,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에서 길선주의 역할,” 『한국교회사학회지』 제21집 (2007), 162.

4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3:10-11(602-603면).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명령으로서의 회개와 인간의 사역으로서 감당해야 할 회개는 철저하게 인간 측의 책임이 강조된다. 이종록, “회개, 그 다양한 표현들,” 『신학과 사회』 제17집 (2003), 62.

47) Martin Luther, *Lectures on Romans*, trans. Wilhelm Pauck(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124.

는 의도를 담는다. 그 일례로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찾아 가르침을 청한 무리들을 향해 교훈했던,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할 때 정해진 세액 외에 추가로 착복하는 행위라든가 집세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횡포, 병사들이 백성들을 위협하여 수탈하는 악행 등 일상적으로 고질화된 폐해를 사례들로 제시했다.<sup>48)</sup>

자, 그렇다면 회개의 정결한 인품을 고스란히 담아 각인할 수 있는 중심 좌소는 어디인가? 그는 단적으로 ‘마음’이라고 확신한다. 철학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이 ‘심정’은 직관적이며 그 관찰은 사물의 모든 점에 걸치고 오직 하나의 목적인 신(神)과 연관하여 인식하는 자리인 것으로 해석된다.<sup>49)</sup> 벌코프는, 종교의 좌소는 마음이라고 보았으며 이 마음은 단지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도덕적 생활의 초점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여<sup>50)</sup> 인격의 중심지인 카르디아(Kαρδιά)의 경지를 설파했다. 따라서 마음은 근본적으로 인격의 삼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포괄하는 고유한 처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기풍은 누가 신조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독백(獨白)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의 태도가 변한 사람이라고 확답했다.<sup>51)</sup>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된 자만이 신조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sup>52)</sup> 칼빈이 주장한 것처럼 회개란 마음의 할레이며,<sup>53)</sup> 오직 성령께서 심중에 내주하셔서 주도하시는 성화를 통해 죄로부터 정결해질 수 있다.<sup>54)</sup>

48) 이기풍, “新造의 人,” 125. cf. 누가복음 3:12-14.

49) 세계철학대사전편집위원회 편, 『세계철학대사전』(서울: 교육출판공사, 1987), 673. ‘심정의 질서’ 항목.

50)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고영민 역, 『뽀콱組織神學: 序論』(서울: 기독교문사, 1985), 180-181.

51) 이기풍, “新造의 人,” 128.

52) 위의 글, 131, 133.

5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III, 3:6(598면).

54) 위의 책, III, 3:14(607면).

이기풍은 신조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회개의 인품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면서 자문자답했다. 그는 부흥사 선데이(Billy Sunday, 미국 야구 MLB 외야수 출신)의 필라델피아 부흥회, 1920년을 전후하여 신유의 이적 은사를 실천한 김익두 목사<sup>55)</sup>의 부흥회 등을 짚어가며 이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들 중 진심으로 회개하여 거룩한 인품을 갖춘 신조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 가득한 물음표를 던졌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개척했던 교회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선교 차 타지로 떠난 후에는 신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타락했던 불행한 사례를 예시해주었다.

『아메리카』의 「윌리 선데이」(Billy Sunday-연구자 주)라 하는 사람은 『빌나 델비아』에서 大 說教를 하여 몇 百萬이란 만흔 사람이 와서 듯고 몇 萬名의 悔改 하는 사람이 잇섯다 歎되다. 數 數로 말하면 그리스도 以上입니다. 오날 우리 朝鮮에도 하로에(하루 동안에-연구자 주) 몇 萬名 式 모혀서 몇 百名의 病者가 按手祈禱에 病을 낮게 하는 金益斗 牧師 又흔 이도 잇습니다. 大端히 感謝 하고 고마온 일이올시다. (중략) 그런데 그 몇 만 몇 천(몇 만 몇 천-연구자 주)이란 사람은 果然 眞實히 病을 곳침을 맞으며 悔改를 하며 信者가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쯤 흠닛가? 至極이 적을 것입니다.<sup>56)</sup>

「바울」도 사람을 만드느 다투는 實노 衰를 만히 썼습니다. 三十 몇 年 동안 衰를 썼습니다. 그리하여 이만하면 훌륭한 人格이라 然則 「바울」의 旅行(타

55) 황해도 재령의 임택권 목사는 1919년에 김익두의 '이적명증회'를 받기하여 3년 간 조사 함으로써 '이적명증서'를 발행했다. 황해도회는 1923년 총회에 이 사실을 제기하여 장로교헌법 제2장 1조, "금일에는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라는 조문을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399.

56) 이기풍, "新造의 人," 127.

지역 선교사역-연구자 주) 中에 맞음이 漸漸 식어지고 탐니다. 이만하면 教會에 青年會에 主日學校에 主 礎石이 되리라 하면 그 사름이 얼마 되지 못하야 罪를 犯하고 教會의 일흠(이름-연구자 주)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 갓흔 일노(이 같은 일로-연구자 주) 「바울」은 맺 番을 울었습시다. 그를 爲하야 여러 番 病이 나섯습시다. 實노 사름들을 新造하는 것이 어려운 것(어려운 것-연구자 주)은 우리가 可히 生覺할 수 잇게 되엿습시다.<sup>57)</sup>

위의 인용문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이기풍은 크게 기대를 모았던 유망한 신자들마저도 쉽사리 죄악의 늪에 빠져들 정도로 신조란 지극히 어려운 과업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자들 내면에 ‘칭의’로서의 구원과 ‘성화’로서의 구원이 한 지평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양자 사이에 큰 괴리가 놓여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여겼다. 이는 그가 심정설에 입각하여 인격의 참된 변화, 즉 성화의 본질을 심층 성찰하는 대목이다. 칭의와 성화는 두 개 차원의 과정(서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이 원화할 수 없는, 일치된 하나의 지평일 따름이다.<sup>58)</sup> 그는 왜 칭의와 성화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모순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고뇌하면서 신자들이 신조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것은 단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간파했다. 이는 ‘심정설로서의 회개’라는 관점과 직결되는 진단이다. 즉 인격의 좌소인 카르디아에 회개가 없으면 결코 신조될 수가 없고, 신조되지 못하면 당연히 성화를 논할 수 없다는 상호 유기적 논리체계를 갖는다.

57) 위의 글, 128.

58) 정병식, “마르틴 루터와 존 웨슬리의 신학적 접점 연구-칭의와 성화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9집(2018), 8.

## 2) '내연'(內燃) 차원에서의 회개의 산물들

이기풍은 '내연' 차원에서 마음에 새겨지는 심오한 회개의 산물들로서 모두 다섯 가지의 요소들을 제시했다. 참 회개가 일어나면 첫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며 둘째, 자기 자신을 귀히 여겨 자기존중심을 확립하며 셋째, 모든 신자들을 형제자매로 인식하며 넷째, 죄를 혐오하여 스스로 멀리하며 다섯째, 내세의 큰 소망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을 가리켜 인격적 회개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가 제시한 이 요소들은 한결같이 마음의 내면에 깊이 아로새겨지는 의지의 신성한 전환이다.<sup>59)</sup> 그에게는 이 요소들이 비록 겉으로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마음 내면에 배태되어 있는 불가시적인 요체이지만 이는 안에서 힘차게 불타오르는 고도의 내연에 해당되며 향후 삶 속에 분출되어 외연해갈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求心點)을 구축한다.

自己는 엇든 개색다귀로 소색다귀로 되엿는지 알지 못혼다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形像티로 지으심을 밧은 하나님의 子女라는 것을 自覺하고 自己가 自己를 尊重하든다는 態度로 變하야 (중략) 우리는 하나님의 子女 우리는 四海가 다 兄弟姊妹라 갓가온 親戚又혼 生覺으로 사름들의게 對혼 態度가 變할 것입니다. (중략) 實노 罪를 犯혼 것이 비암(뱀-연구자 주)을 실어혼는 것 又치 실어혼며 今수까지는 「아야」 하고 嘆息만 혼든 사름이 큰 希望을 가지고 (중략) 后 世上(내세-연구자 주)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永生을 엿을 것인故로 希望이 가득혼며 깃뵈이 充滿혼 것이다. 그와 又치 攄음이 變하겠습습니다. 그것이 悔改라 혼는 것(즉 회개의 산물-연구자 주)입니다.<sup>60)</sup>

59) 칼빈은 증생한 사람이 신자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의지의 변화 차원으로 보았으며,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변화된다는 의미로 설명했다. 이는 거시적인 틀에서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리킨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II, 3:6(297면).

60) 이기풍, “新造의 人,” 128-129.

이처럼 이기풍이 논하는 ‘신조의 사람’은 먼저 내면의 깊숙한 세계인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이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초가 바로 회개라고 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회개의 산물로서 마음속에 이 다섯 가지의 요소들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이 수준에 도달한 신자를 가리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규정하는 ‘義와 眞理의 聖潔함으로써 지으심을 받은 者’<sup>61)</sup>라고 했다. 이렇듯 그는 마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총체적 과정을 내연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조망했다. 그리고 활성화 된 내연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성상 강인한 생명력이 있어 반드시 밖으로 분출하며 마침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 이로써 삶 속에서 보여주는 실천적 열매들이 성화를 추구해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표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기풍이 생각한 삶 속에서 맺는 실천적 열매들은 무엇인가? 이제 그 외연의 관점에 대해 살펴보자.

## 2. ‘신조의 사람’, 그 외연의 관점 분석: 기독교윤리 실천

이기풍은 내연으로서의 회개의 산물인 다섯 가지 요소들을 논한 후에, 이러한 품성을 갖춘 신자들이 외연의 차원에서 보여주어야 할 윤리적 행실들을 성경본문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탐색했다. 그는 기독교윤리관에 입각하여 ‘내연-외연’의 유기적 도식을 통해 외연의 차원에서 삶의 행적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의 실천적 열매들을 제시했다. 이 열매들은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웃과 사회를 지향하는 고결한 윤리관을 보여준다.

첫째, 신조의 사람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한다고 했다. 그는

61) 위의 글, 131.

거짓말을 단 한번 만 하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sup>62)</sup> 특별히 이 사안과 관련하여 “朝鮮 사롭갓치 거짓말을 잘 흐는 國民은 世界에 업다 합니다”<sup>63)</sup> 라는 경구적 표현을 서슴없이 인용하여 발설했을 정도로 그만큼 기독교인자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인품을 갖추는 일에 적극 솔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언행과 관련하여 진리를 말할 것, 추잡한 말을 버릴 것,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것 등을 권면하여 신조의 사람이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성화의 과업들을 자상하게 제시해주었다.<sup>64)</sup>

둘째, 신조의 사람은 부지런히 노력하여 선한 일을 감당하고 빈궁한 처지에 처한 이웃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했다. 그는 생업을 등한시하는 게 으른 자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실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세월을 허송하는 것은 그의 명령을 저버린 처사이기에 하나님 앞에 죄악이요 사람에게 무서운 해독(害毒)이 된다고 했다.<sup>65)</sup>

셋째, 신조의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우리 마음에 臨흐야 우리를 引導흐시며 그 引導를 좃지 아니흐면 聖神이 畵히 울 것입니다”<sup>66)</sup>라고 하여 항상 마음에 임재하셔서 감화를 주시는 성령의 사역에 저항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권고했다.

62) 위의 글, 132.

63) 위의 글, 131. 간접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듣는 바에 의하면 조선 그리스도인 역시 거짓말을 일삼는다고 냉정하게 토설하여 신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64) 위의 글, 133.

65) 위의 글, 132.

66) 위의 글, 133. 이기풍은 성령의 정화(淨化) 사역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聖神이 각 사람의 마음에 臨在흐야 漸漸 마음이 씨긋흐게(깨끗하게-연구자 주) 되는 것”이라고 하여 성령의 내면적 역사를 강조했다. 위의 글, 131. 성령님의 은혜란 칭의에 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로서 성화의 단계로 이어진다. 장기영, “루터의 성화의 장치: 한국 개신교의 종교개혁 메시지 왜곡에 대한 종교개혁자의 교정,”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7집(2017), 275.

넷째, 신조의 사람은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인자와 긍휼을 베풀었다고 했다. 그는 “사람의게 對하여 참으로 스랑흐는 마음으로써 盡力할 것입니다”<sup>67)</sup>라고 진술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것을 당부했다.

다섯째, 신조의 사람은 이웃의 잘못에 대하여 마땅히 의분(義忿)을 품지만 이 의분으로 인해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공의에 입각하여 타인의 불의와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오랫동안 분을 품거나 급기야 상대방을 해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으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계했다.<sup>68)</sup>

이처럼 이기풍은 ‘내연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이루어 마음이 정화된 신자 개개인은 마음속에 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② 자기존중심을 확립하며, ③ 형제자매를 인식하며, ④ 죄에 대해 혐오하며, ⑤ 내세의 소망을 갖는다는 다섯 가지 회개의 산물들이 산출된다고 했다. 나아가 ‘외연의 차원’에서는 이웃과 사회를 향해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① 참된 말을 하며, ② 선한 일을 추구하여 어려움 당한 이웃을 구제하며, ③ 성령께 순종하며, ④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⑤ 자신을 잘 다스려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 다섯 가지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피력했다.

####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이기풍 목사가 1922년에 『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 발표한 글 “新造의 人”을 중심으로 그의 성화담론을 분석했다.

이기풍이 소신을 밝힌 핵심적인 성화담론은 다음 두 차원에서 정리할

67) 이기풍, “新造의 人,” 133.

68) 위의 글, 134. 증오심으로 복수를 시행하면 결코 가해자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며 도리어 심각하게 도덕적, 영적으로 손상을 가한다는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 cf. 이종원, “용서의 윤리-호모 울트라(Homo Ultra)에서 호모 이그노센스(Homo Ignocense)로,” 『신학과 사회』 제28집 2호(2014), 17.

수 있다.

첫째, 그는 성화의 서정을 <법정적 심판→인간의 타락상→예수 그리스도의 대선지자직→신조의 사람>이라는 기승전결 구도를 갖추어 전개했다. ‘기(起)의 단계에서는 모든 인간의 죄악을 준엄하게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논했고, ‘승(承)의 단계에서는 죄로 오염된 인간의 심각한 타락상을 고발했다. ‘전(轉)의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선지자 직무를 개입시켜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신탁을 준행함으로써 진정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논증했다. ‘결(結)의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이 그의 형상을 본받아 점진적으로 ‘신조의 사람’으로 고양되고 진척되어가는 과정을 다루었다.

둘째, 이기풍이 논한 성화의 마지막 서정(‘結’)에 위치한 ‘신조의 사람’의 개념에는 ‘내연’과 ‘외연’의 긴밀한 관계성이 한 지평에 구축되어 있다. 그가 논하는 신조의 사람은 먼저 내면의 세계인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며, 이 카르디아의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인프라가 회개라고 했다. 그는 회개의 산물로서 내연의 차원에서 무르익는 다섯 요소들을 가리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는 것, 자신에 대해 존중심을 갖는 것, 신자들을 형제자매로 인식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내세의 소망을 갖는 것 등이라고 했다. 이처럼 먼저 내연을 견고하게 다지면 내면에 저장된 견실한 품성이 이웃과 사회로 외연 되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정직성, 부지런히 선한 일을 감당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근면성,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충직성, 이웃에 대하여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 의분은 품되 죄는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의인 상을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현재적 함의〉

이기풍 목사가 “新造의 人”을 발표한지 이제 거의 한 세기가 지나고 있다. 그는 1920년대 문화정치가 시행되어 한국기독교가 소위 일제의 황국(皇國) 이데올로기적 시스템에 동화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교회에 이 모토를 적용함으로써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추구하는 올곧은 신자상을 구현할 것을 고취하고자 했다. 그는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당대와 미래의 한국교회를 내다보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고결한 기독교윤리를 견지함으로써 신자의 거룩성을 확립할 것을 기원했다. 주지하듯이 초기 한국교회는 뿌렸한 윤리적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구령사역과 아울러 기독교문화 보급에 힘썼다. 특별히 신자들의 성화과업에 심혈을 기울여 음담패설의 악덕 일소, 금주 금연, 축첩금지, 노비 해방, 반상 구분 폐지, 데릴사위제와 민며느리제 금지, 조혼 및 수양남매 결연 혁파, 노름 및 기방출입 엄금, 마약 퇴치 등 한국기독교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고결한 기독교윤리를 실천했다.<sup>69)</sup> 그러나 현 한국교회는 기독교윤리 의식과 성화사역이 심하게 퇴조되어 세상을 개혁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비난을 받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동향에 대해 주도홍은 한국기독교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바로 믿어야 하는가”(what to believe)라는 논점을 중심으로 이론상으로 씨름만 해왔을 뿐이지 “어떻게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how to live)라는 본질적이며 실천적인 과제를 심층 논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sup>70)</sup> 시공을 초월하여 기독교윤리의 큰 과제는 기독교 정신을 꾸준히 후대에 전수함

69) 안수강, 「정경옥(鄭景玉)의 실용주의(實用主義) 신학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제43집(2019), 156.

70) 주도홍, 『새로 쓴 세계교회사』(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10), 671-672; 안수강,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9집(2014), 141.

으로써 공동체 윤리를 비롯하여 현대사회에 파생되는 윤리적 위기극복을 위한 책무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sup>71)</sup> 역사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개혁을 추구해왔고 지속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왔으며 이는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생명력 있는 직무이다.<sup>72)</sup> 앞으로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기독교윤리관을 고취하고 성화사상을 진작시켜야 할 것이며, 신자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화담론을 활성화하고 지도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성화를 호소한 이기풍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新造의 人”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촉구한 그의 설교는 비록 한 세기 전에 초기 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이지만 성화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현하 한국교회에 여실히 선지자적 육성으로 와 닿는다.

71) 문시영, “기독교와 德, 공로주의인가? 윤리적 전통인가?,” 『기독교사회윤리』 제3집 (2000), 219.

72) 이상훈,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5집 (2013), 41-42.

## 참고문헌

-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기독교대백과사전(제12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 김형석. “제주교회사의 유적을 찾아.”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집(1994), 241-258.
- 문시영. “기독교와 德, 공로주의인가? 윤리적 전통인가?” 『기독교사회윤리』 제3집(2000), 197-219.
- 민경배. 『教會와 民族』.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_\_\_\_\_. 『歷史와 信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 \_\_\_\_\_.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1999.
- 박정신. 『근대한국과 기독교』. 서울: 민영사, 1997.
-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이기풍 선교사 이전 현지인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9집(2013), 181-208.
- 변창욱. “한국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 100년(1907-1956).” 『선교와 신학』 제19집(2007), 13-65.
-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제28집(2000), 173-191.
- \_\_\_\_\_.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에서 길선주의 역할.” 『한국교회사학회지』 제21집(2007), 153-178.
- 세계철학대사전편집위원회 편. 『세계철학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1987.
- 심근식.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생애』. 서울: 영문, 1994.
- 안수강.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제39집(2014), 139-180.
- \_\_\_\_\_. “김필수(金弼秀) 목사의 성찬관 분석: 그의 ‘球上無比의 記念’(1922)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제24호(2019), 251-174.
- \_\_\_\_\_. “정경옥(鄭景玉)의 실용주의(實用主義) 신학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제43집(2019), 153-187.
- 양신혜. “베자의 국가 저항권에 대한 이해.” 『갱신과 부흥』 제24호(2019), 85-114.

- 유태주. “칼빈의 성화론에 있어서 성화의 완전성 이해.” 『신학과 사회』 제18집 (2004), 143-187.
- 이기풍. “新造의 人.”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123-134.
- 이상훈.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5집(2013), 31-63.
- 이종록. “회개, 그 다양한 표현들.” 『신학과 사회』 제17집(2003), 45-66.
- 이종원. “용서의 윤리-호모 울토르(Homo Ultor)에서 호모 이그노센스(Homo Ignocense)로-.” 『신학과 사회』 제28집 2호(2014), 9-38.
- 장기영. “루터의 성화의 장치: 한국 개신교의 종교개혁 메시지 왜곡에 대한 종교개혁자의 교정.”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7집(2017), 245-283.
- 정병식. “마르틴 루터와 존 웨슬리의 신학적 접점 연구-칭의와 성화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제49집(2018), 7-43.
- 정성구. 『한국교회설교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6.
- 주도홍. 『새로 쓴 세계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10.
-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 한석원. “責任의 自覺.” 한석원 편.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 홍순원. “인격과 사회구조에 나타나는 악의 구조성.” 『기독교사회윤리』 제33집 (2015), 379-405.
-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테일회)』. 1908年 10月, 1-14.
- Bavinck, Herman. *Magnalia Dei*.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 Louis Berkhof.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박수준 역. 『기독교교리요약』. 서울: 도서출판 소망사, 1991.
- \_\_\_\_\_. *Systematic Theology*. 고영민 역. 『벨룸組織神學: 序論』.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 Colossians*. trans. T. H. L. Parker.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Kittel, Gerhard. *T. D. N. T.(III)*. trans.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 Luther, Martin. *Lectures on Romans*, trans. Wilhelm Pauck.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 McGrath, Alistair E. *Reformation Thought*. Oxford: Basil Blackwell Inc., 1989.
- Melanchthon, Philip. *Commentary on Romans*. trans. Fred Kramer.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92.
- Robertson, O. Palmer.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2.
- Van Til, Cornelius. *The Defence of the Faith*.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 Westminster Assembly.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Loki's Publishing. April 16, 2013.

논문투고일: 2020년 02월 19일

심사개시일: 2020년 0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04월 18일

---

• 국 문 초 록 •

---

이 연구의 목적은 이기풍(李基豊) 목사의 저작 “新造의 人”을 통해 그의 성화담론을 분석하려는 데 있다. 그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본문말씀으로 선정하여 이 글을 작성했다. 이기풍의 성화에 관한 관점은 단지 “新造의 人”에서 발견할 수 있고 1922년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 게재되었다. 이기풍의 성화담론에 나타난 핵심적인 개념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① 법적적 심판→ ② 인간의 타락과 부패→ ③ 예수 그리스도의 대선지자직→ ④ 신조의 사람>의 조직화된 구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기풍의 극적인 논증으로서의 성화의 서정(序程)에 대해 설명했다. 둘째,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가 논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새 사람’, καινός)의 개념을 다루었으며, ‘내연’(內燃)으로서의 다섯 가지 요소와 ‘외연’(外延)으로서의 다섯 가지 열매라는 실천적 패러다임을 정하고 이 점에 역점을 두어 고찰했다. 그는 이 다섯 가지 산물과 다섯 가지 열매의 상호 조화에 대해 심층 강조점을 두었다. 부연하여, 본 연구자는 향후 이기풍 목사의 성화담론과 관련된 연구가 더욱 외연되어 이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그의 신앙과 성화’, ‘그의 가르침과 성화’, ‘그의 헌신적인 삶과 성화’ 등 다양한 연구주제로 연계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이기풍, “新造의 人”, 성화, 기독교윤리, 회개, ‘내연’(內燃) 및 ‘외연’(外延)

---